

적령기에도 결혼 않는 韓...작년 혼인율 역대 최저

통계청, '2018년 혼인·이혼 통계' 발표 조혼인율 5.0건 기록...역대 최저치 경신 혼인건수는 25.8만...46년만에 가장 적어 "경제 여건 나빠졌고 가치관 바뀐 영향"

지난해 한국의 혼인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 남성,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통계청이 20일 공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지난해 5.0건을 기록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였던 전년(5.2건)보다 0.2건 더 감소했다.

조혼인율은 2007년 7.0건을 기록한 뒤 2014년까지 6건대를 오르내리다가 2015년 5건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혼인 건수 또한 25만7600건으로 1972년 24만4800건 이후 46년 만에 가장 적었다. 2012년 이후 7년째 줄어들고 있다.

30대 초반~40대 초반을 유지하던 혼인 건수는 2000년 33만2100명을 계기로 30대 초반 이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2016년 20만명대에 접어들 뒤 계속 감소 중이다.

성·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30대 초반(30~34세)에서, 여성은 20대 후반(25~29세)에서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이 5300건(5.4%), 여성은 20대 후반이 3300건(3.5%) 감소했다. 30대 초반 여성은 2800건 줄어든 20대 후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감소했다.

30대 초반 남성, 20대 후반 여성은 전(全) 연령대 중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은 나

이대다. 결혼 적령기에도 혼인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 통계청은 인구구조적인 문제와 경제 여건 악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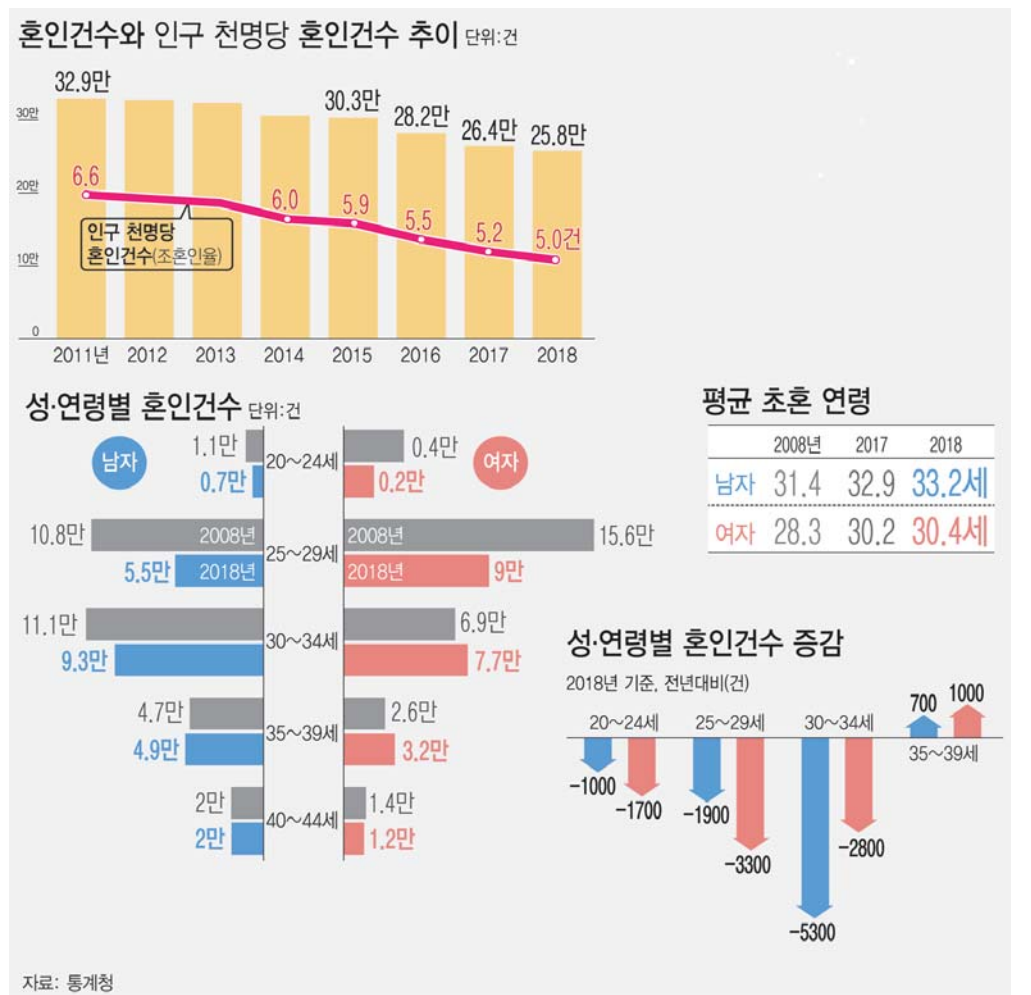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0대 초반 남성, 20대 후반 여성은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율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면서 "30대 인구가 줄어들고 전셋값이 오르는 등 혼인에 필요한 경제 여건이 나빠졌으며 각종 설문조사에서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하는 젊은 남녀가 늘어나는 등 가치관도 바뀐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초반 인구는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25~29세 실업률은 2008년 6.0%에서 2018년 8.8%까지 올랐다. 이 기간 전셋값을 보여주는 전세가격지수는 71.9에서 103.1까지 상승했다.

김 과장은 "인구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 변화는 추세적이라 당장 해결하기가 어렵다"면서 "20~30대의 소득과 주거 여건 등 경제적인 요인이 개선돼야 혼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초혼은 늦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2세, 여성 30.4세로 집계됐다. 남녀 모두 전년보다 0.2세씩 상승했다.

20대를 유지하던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



은 2008년(30.14세) 30대에 진입했다. 이후 2007년 31.1세→2012년 32.1세→2018년 33.2세로 바뀌어왔다.

평균 재혼연령은 남성 48.9세, 여성 44.6세다. 초혼과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0.2세씩 올랐다.

남녀 간 평균 초혼연령 차이는 2.8세다. 전년보다 격차가 0.1세만큼 더 벌어졌다.

여성이 연상인 초혼 부부 비중은 더 커졌

다. 초혼 중 남성이 연상인 부부는 67.0%, 여성이 연상인 부부는 17.2%다. 남성 연상 부부는 전년보다 0.2%포인트(P) 감소한 반면 여성 연상 부부는 0.4%p 증가했다.

통계청은 2018년 1월1일~12월31일 전국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된 혼인·이혼 신고서를 바탕으로 이 통계를 집계했다. 통계 결과는 신고서에 기반을 두므로 사실 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혼인 줄지만 국제결혼은 ↑...태국인 한국댁 5년째 급증

2011년부터 실시된 전전화 정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던 국제결혼이 최근 다시 급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인 남자가 외국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한 건수는 2만 2700건으로 1년 전(2만800건)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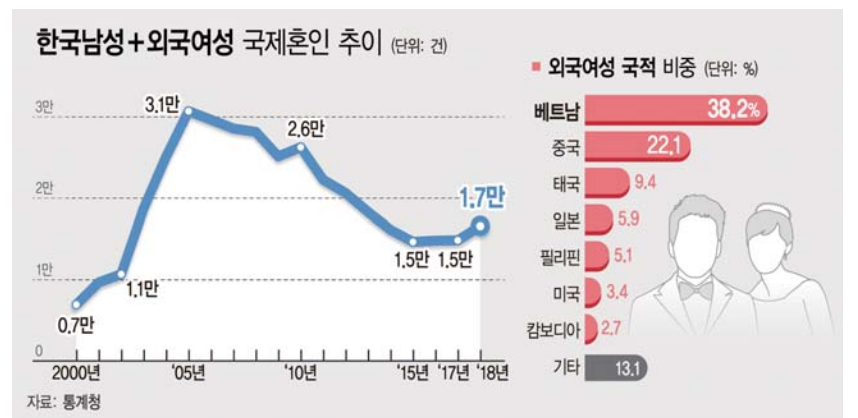
2012년부터 7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외국인과의 혼인 중 한국 남자가 외국 여자와 혼인하는 경우가 73.2%를 차지한다. 지난해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건수는 1만 6600건으로 1년 전(1만4900건)보다 11.7% 늘었다. 2011~2015년 내리 감소하다 2016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3년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증가율은 지난 2005년(22.4%)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다.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6388건·38.2%)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국(3671건·22.1%)이 이었다. 베트남과 중국 여

자가 한국에 시집은 외국 여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베트남 출신 한국댁은 2001년부터 급속하게 늘어나다 이후 등락을 반복했지만 2010년에는 중국 여자와 동수를 기록한 후 2011년에는 추월하기도 했다. 중국 출신 한국댁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2015년부터는 베트남 여자가 중국 여자보다 매년 많았다.

한국 남자가 태국 출신 여자와 혼인한 건수는 1560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베트남과 중국에 비하면 미미한 비중이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53.4%로 가장 높았다. 태국 여자가 한국에 시집 오는 건수는 2014년(50.9%)부터 2015년(23.7%), 2016년(32.6%), 2017년(41.3%)을 거쳐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두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통계과장은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한류 열풍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향"이라며 "실제 결혼 이민 등으로 인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추세를 보면 태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건수는 지난해 6100건으로 1년 전(6000건)보다 2.1% 늘었다. 중국 남자와 혼인한 건수가 148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24.4%)을 차지했다. 미국 남자와 혼인한 경우(1439건·23.6%)가 두 번째였다.

외국인과 혼인건수 2년째 ↑...73%가 한국남-외국녀
베트남 아내 1위...2015년부터 중국 아내보다 많아
태국 아내 5년째 두 자리 수 ↑...“한류·결혼 이민 등”

인 여자와 결혼한 건수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한국에 시집오는 태국 여성은 5년째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세를 이어갔다.

1900건(8.9%)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17년부터 2년째 오르고 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8.8%로 전년보다 0.9%p 상승했다. 전체 혼인 건수가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